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4. 29(수) 총 9매 (본문5, 붙임4)	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(도로운영과)	담 당 자	• 과장 오수영 , 사무관 전진 , 주무관 정종선 • ☎ (044) 201-3909, 3912, 3920	
보 도 일 시	2020년 5월 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1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정부-지자체 협업 도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첫걸음

- '고흥군', '부안군', '옥천군', '인제군', '하동군' 등 5개소 공모선정 -

- 「스마트 복합쉼터」 국토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첫 시범사업
-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에 1개소 당 20억원 국비 지원, 지자체는 홍보관, 특산물 판매장 등 건설, 주도적 운영·관리
- 전기·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최신 스마트 기술 접목, 미려한 건축 디자인을 반영한 안락한 쉼 공간 마련
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- 지자체와 담당 도로관리청간 협의를 통해, 금년말 공사 착수

<「스마트복합쉼터」 '20년 사업 선정결과>

* 가나다 순

대상지	사업명
강원 인제군	하늘내린산채세상 스마트복합쉼터사업
경남 하동군	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사업
전남 고흥군	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사업
전북 부안군	부안 곰소염전 스마트복합쉼터사업
충북 옥천군	옥천 대청호반 스마트복합쉼터사업

* 지자체 신청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별 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 후, 전문 평가단을 통해 사업 타당성, 가능성, 지속성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

사업 개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「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」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, 경관조망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로,
-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최초의 중앙정부-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이다.
- 금년에는 우선 전국에 5개소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이며, 사업 대상지는 강원 인제, 충북 옥천, 전북 부안, 전남 고흥, 경남 하동이다.

'20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공모 선정 결과



사업 대상지 (*가나다 순)

- 지자체가 기획하여 신청한 사업들에 대하여,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, 도로,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, 가능성,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소를 선정하였다.

①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

-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한 사업 대상지다.
- 경관 뿐 아니라 지역자원 및 주민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향유 가능한 편의·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. 특히, 수소충전소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2020년 고흥-여수 간 연륙·연도교 개통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단순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사업이다.

②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

-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는 자전거 코스 이용자의 중간 거점쉼터로 자전거 및 바이크 정비,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업지다.
- 특히, 넓은 염전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명소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곰소 천일염 6차 사업과 연계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제공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, 수소차 충전소 및 IoT 등 스마트 서비스도 제공한다.

③ 옥천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쉼터

- 지역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내·외부에 판매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, 대청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편안한 힐링형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이다.
- 인근 주민을 위한 유아·어린이 놀이터 등의 휴게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쉼터이자 소통 공간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인제 하늘내린산채세상 스마트 복합쉼터

- 농산물 판매장, 어린이 놀이시설, 관광안내소(번지점프, 슬링샷, 백담사, 빙어축제 등)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편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다.
- 미시령 옛길의 휴게소 폐지로 인한 휴식공간 공백을 해소하고, 한계령 및 인근 영동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레포츠 여행객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⑤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

- 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는 섬진강, 배밭으로 이루어진 부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.
- 단절된 섬진강 유역을 연결하여 교통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문화 앵커 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. 특히 지리산 문화체험, AR·VR 체험시설, 경관 조망, 특산품 판매, 교통정보 등 다양한 융·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향후 계획

-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(정부 20억+지자체 10억 이상)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,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·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5~6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간 사업별 추진방안 협의를 실시하고, 7월부터 각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설계를 거쳐, 금년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.
- 특히, 본 쉼터가 지역의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지, 풍광 등을 고려하여 건축 디자인을 개선하고, 수소차 충전소 설치·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, 지자체의 건설·관리 뿐만 아니라,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수” 라며,
 - “앞으로 도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복합쉼터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,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전진 사무관(☎044-201-39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스마트 복합센터 선정지 조감도(안)

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센터



<사업지 개요>

- 신청기관 : 전라북도 고흥군
- 도로관리청: 익산청(순천국토)
- 사업위치 :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/ 국도77호선
- 부지규모 : 36,871m²

<주요 내용>

- 고흥-여수간을 잇는 팔영대교 의 진입 관문 및 마중터이자 지역자원의 홍보, 특산물 판매 등 주민과 연계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활용 공간을 제공

인제 하늘내린산채세상 스마트복합센터



<사업지 개요>

- 신청기관 : 강원도 인제군
- 도로관리청: 원주청(홍천국토)
- 사업위치 : 인제군 남면 남전리
- 부지규모 : 6,400m²

<주요 내용>

- 농산물 판매장, 어린이 놀이시설, 관광안내소 설치 등 편의 제공 공간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

부안 곰소염전 스마트복합쉼터



<사업지 개요>

- 신청기관 : 전북 부안군
- 도로관리청: 익산청(전주국토)
- 사업위치 :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/ 국도30호선
- 부지규모 : 7,413m²

<주요 내용>

- 자전거 이용객의 중간거점쉼터이자 곰소 천일염 6차 사업과 연계 방문객에게 주변의 다양한 체험 및 특산품을 홍보, 친환경 차량 충전소, IoT, ICT 스마트 서비스 등 제공

옥천 대청호반 스마트복합쉼터



<사업지 개요>

- 신청기관 : 충북 옥천군
- 도로관리청: 대전청(보은국토)
- 사업위치 :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/ 국도 37호선
- 부지규모 : 8,658m²

<주요 내용>

- 대청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편안한 힐링형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여 운전자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내·외부에 판매 공간 조성

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센터



<사업지 개요>

- 신청기관 : 경남 하동군
- 도로관리청: 부산청(진주국토)
- 사업위치 :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/ 국도19호선
- 부지규모 : 12,788m²

<주요 내용>

- 지리산 문화체험, AR·VR 체험시설, 경관 조망, 특산품 판매, 교통정보 등 다양한 융·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앵커시설 조성

◇ 추진배경

- 도로는 지역의 관문역할을 수행하면서, 신속한 이동성·접근성·안전성뿐만 아니라, 이용자 편의제고 등 다양한 가치가 요구
- 특히, 일반국도 쉼터 등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며, 도로 이용자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므로,
 - 지역 홍보,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시설 구축이 요구
- 도로 공간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, 지역의 자율성·창의성 발휘를 유도하고, 역사·문화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쉼터 조성을 검토할 필요
 - 아울러, IoT, ICT 등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, 운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할 필요

◇ 개념

- 스마트 복합즐음쉼터란 기존 즐음쉼터에 문화체험, 경관 조망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시설
 -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·공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하는 것이 목적

◇ 사업추진

- (시설조성) 도로관리청(국토소 등)은 기반시설을 조성('20년, 20억원)하고, 지자체는 지역홍보·발전 등을 위한 시설 설치(~'21년, 10억원+α)
- (운영·관리) 지자체에서 복합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되, 필요시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·관리

